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 탐색*

권 순 범¹⁾

진 미 정²⁾

김 은 영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으로 조사한 학부모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 605명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참여 유형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은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의 관련요인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이,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은 가구소득, 자녀 학교급,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내적인 다양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버지 참여, 잠재계층분석, 지역사회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전문 발표한 논문이며,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A02072579).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mchin@snu.ac.kr)

3)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I. 서론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처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모델에서는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중심의 학부모 참여를 강조해왔지만 학교-지역사회 모델이 확산될수록 학부모의 다각적인 참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해외의 경우 학부모 참여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Henderson, Marburger, & Ooms, 1986). Epstein(2001)은 학교, 가족,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학부모 참여 유형을 부모의 양육 기술, 학교와 가정 간의 의사소통, 학부모의 자원봉사활동, 가정학습 전략, 학습 관련 의사결정시 학부모 포함,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학부모 참여는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부, 학부모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도 Wee 프로젝트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학부모를 위한 교육, 봉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입시설명회, 자기주도 학습지도, 진로·진학지도 같은 교육정보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녀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효능감 증진(도현심 등, 2009; 문성주, 김성길, 2013), 부모중심 교육관에서 자녀중심 교육관으로의 변화(정인숙, 김정호, 2012)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은 정보 전달이나 자녀의 문제 해결과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홍은영, 임진영, 2014)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나 관계 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부모 순찰대 등과 같은 봉사 프로그램은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장혜란, 이세진, 2012).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특히 아버지 참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이 주목받게 되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소영과 진미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은 최근 들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버지 참여에 대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으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취학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도 중요한데, 자녀교육의 책임은 주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이현아,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는 거의 드문 상황이다.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아버지 역할도 자녀 양육에서 자녀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중 특히 아버지 참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는 자녀의 인지 발달과 학업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정수진, 김도연, 2016; McBride, Schoppe-Sullivan, & Ho, 2005; Newland, Chen, & Cowl-Shepherd, 2013)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 수준은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 이세용, 양현정, 2003).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은 참여 수준보다 높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지선, 박성연, 전춘애, 2009). 아버지 학교참여에 대한 집단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아버지 학교참여의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참여 통로의 부재를 들 수 있다(이현아, 2014).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채널이자 실천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아버지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기관의 성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따라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교는 생활통지표, 알림장,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학부모와 의사소통하고 있기 때문에(정영주, 2014)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장이기에 학생의 개인 특성이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와 관련된 교육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데 지역사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전문성, 접근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양하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학교보다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참여도를 비교하면 아버지의 선호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의 방

안도 제안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이 갖는 상호 관련성도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될 수 있다. 이세용(1997)은 아버지의 교육참여 유형 간에 관련성이 있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경험이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영역마다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영역 간 관련성은 아버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복잡한 동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영역을 구분하는 접근 방식은 아버지 집단 내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집단 내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의 참여 수준을 단일하게 진단하여 접근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아버지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하위유형을 찾아서 개별 유형에게 적합한 참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집단이 갖는 내적 이질성에 주목하여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을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여 아버지가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한 참여 유형과 관련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 관련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학교-지역사회의 연계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첫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경험을 측정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포괄한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형화하려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는 1,084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아버지는 622명이다.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는 혼인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배우자인 아버지 605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개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452명(74.71%)

표 1. 연구대상의 개인 특성

(N = 605)

		빈도(명)	비율(%)
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	6.45
	대학교 졸업	452	74.71
	대학원 이상	114	18.84
맞벌이 여부	외벌이	271	44.79
	맞벌이	334	55.21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156	25.78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62	43.31
	600만원 이상	187	30.91
거주 지역	동부	550	90.91
	읍면부	55	9.09
자녀 성별	여자	272	44.96
	남자	333	55.04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225	37.19
	중학교	187	30.91
	고등학교	193	31.90
자녀 성적	하위권	18	2.98
	중하위권	34	5.62
	중위권	171	28.26
	중상위권	208	34.38
	상위권	174	28.76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	매우 낮다	2	0.33
	낮은 편이다	72	11.90
	높은 편이다	419	69.26
	매우 높다	112	18.51

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114명(18.84%),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9명(6.45%)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 중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55.21%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262명(43.31%)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가 550명(91.91%), 읍면부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55명(9.09%)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아들을 둔 경우가 55.04%로 딸을 둔 경우보다

많았으며, 자녀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225명(37.19%), 중학교가 187명(30.91%), 고등학교가 193명(31.90%)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학급 내 성적에 대해 34.38%의 아버지가 중상위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상위권이라고 답한 아버지의 비율도 28.76%에 달해 전반적으로 자녀 성적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9명(69.26%),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112명(18.51%)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유형화 지표

설문조사에서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청 또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학교 프로그램에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는 모두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고, 이러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서 명시적으로 학부모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 중 학부모 인지도가 높은 Wee 프로젝트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정신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

영 영역은 봉사, 교육정보, 부모교육, 상담, 재능기부, 평생교육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매우 제한적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독서동아리, 인문학 강좌 등을 포함하여 자녀교육과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두 영역은 유형화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학교와 지역사회로 구분되기 때문에 잠재계층분석에 사용된 유형화 지표는 총 8개이다(운영 주체 2 * 프로그램 영역 4).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프로그램에) 참여함’, ‘(프로그램에) 참여 안함’, ‘(프로그램이) 없음’,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름’으로 측정하였는데, 프로그램 참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프로그램 참여 여부(0 = 프로그램 미참여, 1 = 프로그램 참여)의 이항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관련요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 관련 요인을 선정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는 아버지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성적,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었다(최지선 등, 2009). 최지선 등(2009)의 연구에서 자녀 성별과 자녀 학교급은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와 관련성이 없었지만, 다른 선행연구(김소영, 진미정, 2015; 김은영, 권순범, 진미정, 2018)에서 자녀 성별, 자녀 학교급과 같은 자녀 특성이 학부모 학교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참여의 주요 통로인 프로

그럼과 관련하여 해당 변인들이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 유형을 구분하는데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맞벌이 여부나 거주 지역에 따라 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김봉제, 2015; 김은영 등, 2018),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맞벌이 여부와 거주 지역도 연구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 2는 다항로짓모형에 투입된 관련요인의 변수값을 나타낸 것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한 후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맞벌이 여부는 ‘외벌이’를 0, ‘맞벌이’를 1로 코딩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에 대한 더미변수를 각각 만들었다. 거주 지역은 ‘동부’를 0, ‘읍면부’를 1로 코딩하였으며, 자녀 성별은 ‘여자’를 0, ‘남자’를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자녀 학교급은

‘초등학교’를 준거집단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자녀 성적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① 상위권~⑤ 하위권)와 4점 리커트 척도(① 매우 높다~④ 매우 낮다)로 측정하였는데, 두 변수 모두 역코딩하여 연속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3. 자료 분석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LCA stata plugin을 사용하여 8개 유형화 지표에 따른 잠재계층분석을 하였으며, 적합도 지수와 Entropy 지수, 모형 간 유의성 검정을 비롯하여 모형의 간결성과 잠재계층의 해석 가능성에 근거하여 최적의 모형을 결정하였다.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SA BIC(sample-size adjusted BIC) 등의 적합도 지수

표 2.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 관련요인

변수명	변수값
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더미 변수)
맞벌이 여부	0 ‘외벌이’, 1 ‘맞벌이’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더미변수)
거주 지역	0 ‘동부’, 1 ‘읍면부’
자녀 성별	0 ‘여자’, 1 ‘남자’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더미변수)
자녀 성적	귀하는 첫째 자녀의 학급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위권’ ~ 5 ‘하위권’으로 측정된 변수값을 역코딩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	자녀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다’ ~ 4 ‘매우 낮다’로 측정된 변수값을 역코딩

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분류정확도를 나타내는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집단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Jedidi, Ramaswamy, & DeSarbo, 1993). 그리고 모형 간 유의성 검정은 LCA bootstrap stata function을 활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에서 도출한 아버지의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의 관련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를 투입한 다항로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분석은 Stata12.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화 지표의 특성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를 유형화하기 위한 지표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봉사 프로그램이 24.7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정보 프로그램이 20.99%, 상담 프로그램이 14.05%,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12.40%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교육정보 프로그램(28.43%), 봉사 프로그램(27.60%), 상담 프로그램(21.98%), 부모교육 프로그램(15.3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봉사 프로그램과 교육정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학교 프로그램보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2.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화

표 4는 8개 유형화 지표에 따른 잠재계층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잠재계층의 수를 2개부터 하나씩 늘려가면서 적합도 지수와

표 3.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빈도 (N = 605)

유형화 지표		빈도	비율
학교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참여	150	24.79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75	12.40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127	20.99
	상담 프로그램 참여	85	14.05
지역사회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참여	167	27.60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93	15.37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172	28.43
	상담 프로그램 참여	133	21.98

표 4. 잠재계층 모형 적합도

($N = 605$)

	Log Likelihood	AIC	BIC	SSA BIC	Entropy	p-value
Class2	-1999.82	642.70	717.59	663.62	.85	
Class3	-1942.67	546.42	660.95	578.41	.84	.01
Class4	-1862.51	404.09	558.28	447.16	.85	.01
Class5	-1832.21	361.49	555.32	415.64	.88	.01
Class6	-1816.62	348.31	581.79	413.53	.89	.01
Class7	-1804.88	342.83	615.96	419.12	.90	.03

Entropy 지수 등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Lubke와 Muthén(2007)은 Entropy 지수가 .80일 경우 90% 이상이 정확하게 분류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표 4를 보면 Entropy 지수는 모두 .80 이상으로 잠재계층의 분류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 간의 유의성 검정도 2개 잠재계층부터 7개 잠재계층까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에서 AIC와 BIC는 잠재계층이 5개인 경우에 각각 361.49, 555.3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SSA BIC는 잠재계층이 6개일 때 415.64로 가장 낮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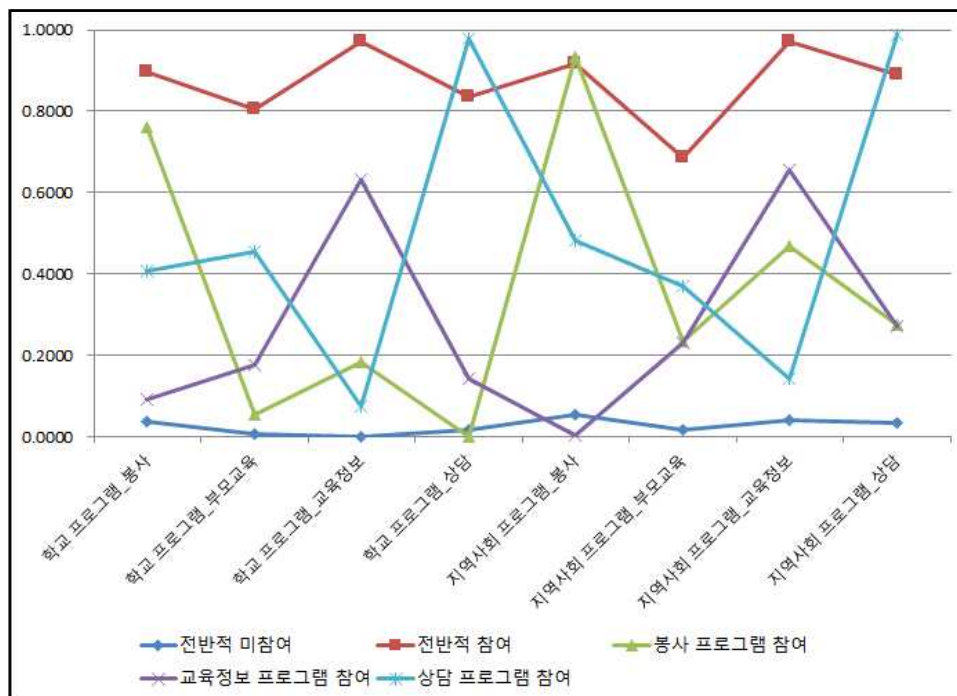


그림 1. 잠재계층 유형의 조건부 응답 확률 그래프

통계적 기준만으로는 잠재계층이 6개인 모형이 5개인 모형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잠재계층이 6개인 모형의 조건부 응답 확률을 살펴보면 잠재계층 간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홍세희와 노연경(2013)처럼 통계적 기준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결성과 잠재계층의 해석 가능성에 근거하여 잠재계층이 5개인 모형이 최적의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1은 잠재계층이 5개인 모형의 유형별 조건부 응답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에서 Y축은 각 유형화 지표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첫 번째 집단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확률이 낮았던 것에 반해, 두 번째 집단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확률이 높은 편이었다. 세 번째 집단은 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확률이 유독 높았으며, 네 번째 집단과 다섯 번째 집단은 각각 교육정보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첫 번째 집단은 ‘모든 프로그램적 미참여’ 집단, 두 번째 집단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 세 번째 집단은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 네 번째 집단은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 다섯 번째 집단은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별 개인 특성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된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별 개인 특성은 표 5와 같다.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는 357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59.01%였다.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는 95명(15.70%),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는 79명(13.0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는 각각 48명(7.93%)과 26명(4.30%)으로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유형별 개인 특성 중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95% 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맞벌이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의 맞벌이 비율이 69.23%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가 64.56%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동부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비율이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을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이었다.

자녀 성별과 관련하여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율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64.58%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61.5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첫째 자녀의 학교급이 초등학교인 경우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57.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중학교인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47.91%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첫째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는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54.43%로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학급 내 성적

표 5.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별 개인 특성 (N = 605)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n = 357)		모든 프로그램 참여 (n = 48)		봉사 프로그램 참여 (n = 95)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n = 79)		상담 프로그램 참여 (n = 2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7.56)	1	(2.08)	7	(7.37)	1	(1.27)	3	(11.54)
	대학교 졸업	267	(74.79)	34	(70.84)	65	(68.42)	65	(82.27)	21	(80.77)
	대학원 이상	63	(17.65)	13	(27.08)	23	(24.21)	13	(16.46)	2	(7.69)
맞벌이 여부	외벌이	167	(46.78)	23	(47.92)	45	(47.37)	28	(35.44)	8	(30.77)
	맞벌이	190	(53.22)	25	(52.08)	50	(52.63)	51	(64.56)	18	(69.23)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113	(31.65)	9	(18.75)	17	(17.89)	12	(15.19)	5	(19.23)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3	(42.86)	21	(43.75)	42	(44.22)	34	(43.04)	12	(46.15)
	600만원 이상	91	(25.49)	18	(37.50)	36	(37.89)	33	(41.77)	9	(34.62)
거주 지역	동부	322	(90.20)	44	(91.67)	89	(93.68)	69	(87.34)	26	
	읍면부	35	(9.80)	4	(8.33)	6	(6.32)	10	(12.66)	-	
자녀 성별	여자	158	(44.26)	17	(35.42)	46	(48.42)	41	(51.90)	10	(38.46)
	남자	199	(55.74)	31	(64.58)	49	(51.58)	38	(48.10)	16	(61.54)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140	(39.22)	14	(29.17)	45	(47.37)	11	(13.92)	15	(57.69)
	중학교	101	(28.29)	23	(47.91)	27	(28.42)	25	(31.65)	11	(42.31)
	고등학교	116	(32.49)	11	(22.92)	23	(24.21)	43	(54.43)	-	
자녀 성적	평균(표준편차)	3.70	(0.98)	3.92	(1.18)	3.98	(0.99)	3.87	(1.09)	4.12	(0.86)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	평균(표준편차)	2.95	(0.54)	3.40	(0.49)	3.21	(0.62)	3.16	(0.49)	3.12	(0.59)

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이 평균 3.70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은 ‘모든 프로그램 적 참여’ 집단(평균 3.40점),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평균 3.21점),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평균 3.16점),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평균 3.12점),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평균 2.95점) 순으로 나타났다.

4.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 관련요인 분석

표 6은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다항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과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유의하였는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한 단위 커질수록 ‘모

표 6.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 관련요인 분석

(N = 605)

	모든 프로그램 참여	봉사 프로그램 참여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상담 프로그램 참여
	B (SE)	B (SE)	B (SE)	B (SE)
부 교육수준 (1 = 대학교 졸업)	.78 (1.06)	-.58 (.47)	1.50 (1.04)	-.76 (.70)
부 교육수준 (1 = 대학원 이상)	1.08 (1.10)	-.37 (.53)	1.16 (1.09)	-1.90 (1.00)
맞벌이 여부	-.20 (.33)	-.12 (.25)	.29 (.27)	.55 (.46)
가구소득 (1 = 400~600만 미만)	.68 (.45)	.66 (.33)*	.56 (.38)	.49 (.58)
가구소득 (1 = 600만 이상)	.83 (.48)	1.01 (.36)**	.83 (.39)*	.93 (.63)
거주 지역(1 = 읍면부)	-.02 (.59)	-.19 (.47)	.36 (.41)	-14.29 (870.95)
자녀 성별(1 = 남자)	.41 (.33)	-.19 (.24)	-.28 (.26)	.17 (.43)
자녀 학교급 (1 = 중학교)	.63 (.39)	-.35 (.29)	1.00 (.39)*	-.04 (.44)
자녀 학교급 (1 = 고등학교)	-.31 (.45)	-.68 (.31)*	1.41 (.38)***	-15.02 (504.89)
자녀 성적	-.13 (.18)	.03 (.13)	.11 (.14)	.24 (.24)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 (상수)	1.51 (.33)***	.89 (.24)***	.56 (.26)*	.48 (.41)
	-7.95 (1.50)	-3.83 (.88)***	-6.54 (1.35)***	-4.59 (1.58)**
LR χ^2	144.36***			
Pseudo R^2	.10			

* $p < .05$. ** $p < .01$. *** $p < .001$.

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승산이 4.53배 증가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구소득, 자녀 학교급,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경우와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승산이 각각 1.93배, 2.7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승산이 0.51배로 나

타났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한 단위 높을수록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승산이 2.44배 증가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과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자녀 학교급,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 등이 유의하였는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승산이 2.29배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에 비해 중학생 자녀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승산이 각각 2.72배, 4.10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이 한 단위 커질수록 아버지가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승산은 1.75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가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은 서로 유사성이 있었다. 특정 영역의 학교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는 아버지는 동일한 영역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적으로 볼 때 학교보다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유형은 5개로 구분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되었다. 5개 유형은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59.01%),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7.93%),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4.30%),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15.70%),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13.06%)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을 기준으로 다항로지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소득, 자녀 학교급,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 등이 유형을 구분하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라 관련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59.01%의 아버지가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대부분의 아버지가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참여 수준이 어머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이강이 등, 2013; 이세용, 양현정, 2003). 그러나 잠재계층분석 결과는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대상 중 약 8%의 집단은 왕성한 참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13~15%의 집단은 봉사 프로그램 및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어 아버지 참여 유형의 내적 다양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참여가 저조하다는 고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약 59%의 아버지는 참여가 저조하였지만, 나

머지 40%의 아버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아버지 참여가 자녀의 인지발달, 학업증진 뿐만 인성발달, 생활지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다면 보다 많은 아버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건부 응답 확률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 참여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 간에 관련성이 있었다. 예컨대 학교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참여 활동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간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현아, 2014)를 뒷받침한다. 외국에서 학부모 참여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처럼(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2), 우리나라의 학부모 참여가 지역사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연계성을 갖고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사회의 연계는 학교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며(최돈민, 2013), 이를 통해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참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프로그램 내용 간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프로그램에 고루 참여하는 집단을 제외하면 아버지들은 상담 프로그램이나 봉사 프로그램, 교육정보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내용

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한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는 나머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선행연구(이세용, 1997)의 결과와 배치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을 다루게 되면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후속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인 원인 및 참여 내용 간 관련성 여부 파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봉사, 상담, 교육정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 집단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 프로그램 만족도, 개별 특성을 질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프로그램에 고루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 집단의 아버지 특성 역시 비교 분석하여 특정 프로그램 위주로 참여하는 집단과의 차이점을 도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다항로지트 회귀분석 결과는 아버지의 참여 유형에 따라 관련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가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이 ‘모든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과 구분되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 성별, 자녀 성적 등이 학부모 학교참여와 관련성이 있었는데(김소영, 진미정, 2015; 김은영 등, 2018; 최지선 등, 2009)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유형에서는 그러한 개인 특성보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이 유형을 구분 짓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만큼 아버지의 자녀교육

에 대한 관심수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과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은 공통적으로 자녀 학교급이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이었는데, 관련성의 방향은 두 집단이 상이하였다. 즉,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 비해 ‘봉사 프로그램 참여’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감소한 것에 반해, ‘교육정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 참여 동인이 같은 학교급이라도 상반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만 관련요인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상담 프로그램은 자녀 문제 발생 시 요청에 의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홍은영, 임진영, 2014). 이처럼 프로그램 참여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 동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영역에 따라 8개 유형화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아버지 참여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참여 여부만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아버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가지는 의미는 질적으

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미참여’가 갖는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참여 유형 분류 관련요인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을 제외하면 모두 사회인구학적 변인이었다. 프로그램 미참여 집단과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이 없다는 결과는 모형에 투입된 변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정서적 측면이나 관계적 속성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결과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이 다양한 참여 유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문항은 관심의 양만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관련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은 그 목적이나 내용에 따른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수준이 갖는 다양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느끼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나 자녀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를 프로그램 참여 유형별로 비교·분석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 참여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관련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버지 참여 유형의 내적 다양성에 근거하여 추후 아버지의 학교·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김봉제 (2015). 맞벌이 부모 학교참여 지원방안 연구. *학부모연구*, 2(2), 1-23.
- 김소영, 진미정 (2015). 초·중·고 학교급별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 27(2), 27-60.
- 김소영, 진미정 (2016). 부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관련요인 변화와 가족정책에의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5), 1-19.
- 김은영, 권순범, 진미정 (2018). 중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521-540.
- 도현심, 이선희, 오유리, 김정미, 최규리, 강나현 (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 및 지식정도: 그 실태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0(3), 127-143.
- 문성주, 김성길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연구*, 3(3), 1-16.
- 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2). 학교급별, 지역별, 학부모 특성별 학부모 학교참여 실태조사에 따른 시범학교 운영방안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세용 (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가을), 595-623.
- 이세용, 양현정 (2003). 아버지의 교육참여와 청소년 발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현아 (2014).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아버지 학교참여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179-191.
- 장혜란, 이세진 (2012). 학교도서관의 학부모 자원봉사자 만족도 연구: 안양·과천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183-200.
- 정수진, 김도연 (2016). 중학생이 지각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5(2), 167-181.
- 정영주 (2014). 학부모-교사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루만의 체계이론 관점에서. *초등교육연구*, 27(4), 179-205.
- 정인숙, 김정효 (2012). 학습관여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초등학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독서활동을 활용한 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2), 151-174.
- 최돈민 (2013).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육종합연구*, 11(4), 269-291.
- 최지선, 박성연, 전춘애 (2009).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일상생활 참여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67-181.
- 홍세희, 노연경 (2013). 남자청소년의 온라인게

- 임 이용시간 변화형태에 대한 잠재계층 추정 및 비행형태와의 관련성 검증. *한국 청소년연구*, 24(4), 119-148.
 - 홍은영, 임진영 (2014). 학부모상담 시 초등학교사의 체험 내용 분석. *초등상담연구*, 13(3), 349-377.
 - Epstein, J. L. (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Boulder, CO: Westview Press.
 - Henderson, A. T., Marburger, C. L., & Ooms, T. (1986). *Beyond the lake sale: An educator's guide to working with parents*. Columbia, MD: National Committee for Citizens in Education.
 - Jedidi, K., Ramaswamy, V., & DeSarbo, W. S.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375-394.
 - Lubke, G., & Muthén, B. O.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1), 26-47.
 - McBride, B. A., Schoppe-Sullivan, S. J., & Ho, M. H. (2005). The mediating role of fathers' school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201-216.
 - Newland, L. A., Chen, H. H., & Coyl-Shepherd, D. D. (2013). Associations among father beliefs, perceptions, life context, involvement, child attachment and school outcomes in the U.S. and Taiwan. *Fathering*, 11(1), 3-30.
- 1 차원고접수 : 2018.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8. 11. 16.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9.

The Typ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School and Community Programs: An Exploratory Latent Class Analysis

Kwon, Soonbum¹⁾

Chin, Meejung¹⁾

Kim, Eunyoung²⁾

¹⁾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latent class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school and community programs an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latent classes.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parent survey data collected by Center for Family-School Partnership Policy Resear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605 fathers were selected as analysis subjects.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types of fathers' participation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levant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thers' participation were classified into five latent classes: the group not participating in all programs; the group participating in all programs; the group participating in counseling programs; the group participating in volunteer programs; and the group participating in child education programs.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ypes of fathers' participation varied among the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fathers' participation can be divided into various types.

Keywords: fathers' participation, latent class analysis, community programs, school programs